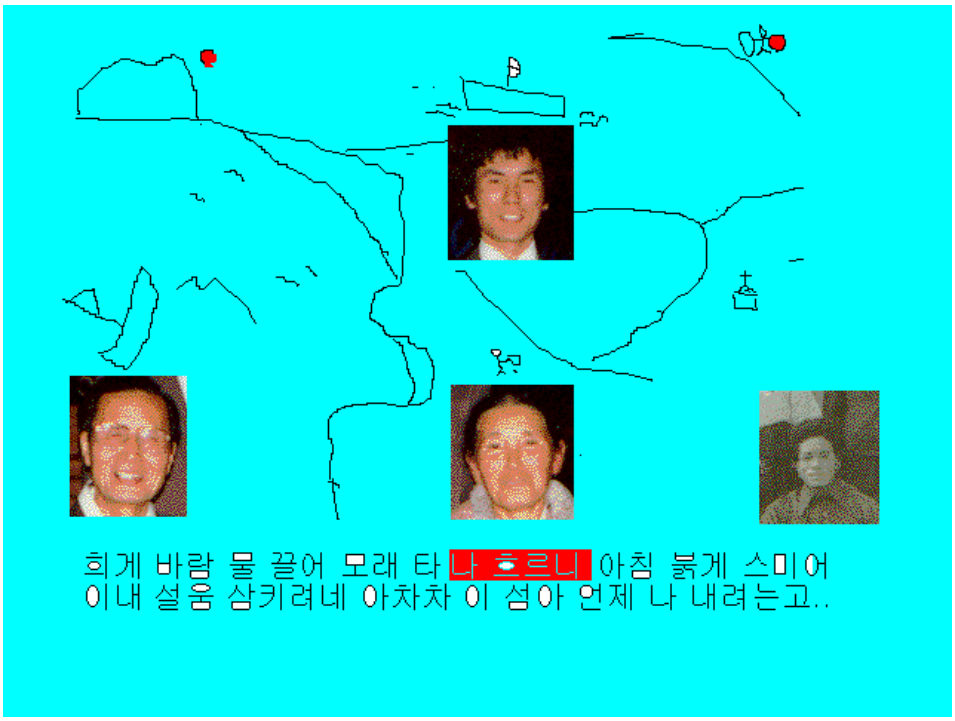


논문 일기(2001년 5월 18일 금요일부터)

아차도에서의 마지막 날들,

너무도 행복했던 고요함들,

비록 인간들로부터 오는 싸늘함에 '떨'기도 했지만,

아차도에서의 날들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것처럼

나를 감싸 앉았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전(全)날들이 보여주었어.

오늘 역시 마음은 유난히 아프고 쓰라렸지만

자기로부터의 전화로 인한

위로는 나를 달래기에 충분했어.

어제도 말했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르시는 것 같아.

사실

자기와의 교섭들은

거의 기적,

아니

기적 전체인 것 같아.

등대를 통해 바라 보이는

수평선 끝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내가 아차도 들어 온 며칠 후 썼던

다음의 글 '(1)'에 대한 글 '(2)'를

아차도 마지막 날에 쓰기 위해,

수첩 오늘의 공란을 펼치고,

짤막 글을 마치는 순간

빗 방울이 그려 내는

점 하나가 기울어지면서

눈물에 스밀듯

종이에 달라 붙었어.

(1) : 희게 바람 물 끌어

모래 타 나 흐르니

아침 붉게 스미어

이내 설움 삼키려네.

아차차 이 섬아 언제 나 내려는 고!

(2) : 아차차 이 섬이 기어코 나 내 누나

오는 날 못 세우고 가는 날 못 잡은 탓

이 내 설운 논문을 마치지 다 못했는데

왜 이리 서둘러 이내 나 비로 내는고!

2001년 5월 18일 오후 10시 날씨 흐림

오늘부터 논문일기를 쓰려고 마음 먹었다. 나의 사유가 나아가는 길을 나 스스로가 되새겨 보면서, 그 길을 내가 이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논문의 내용이 걸러질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루의 주요한 사건이 기록될 것이다.

그제(16일) 서도면 아차도리 유영식씨 집으로부터 양사면 북성1리 양태호씨 집으로 옮겼다. 물론 빈 집이며, 마찬가지로 삯은 없다. 그리고 오늘 짐 정리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겨울 추위에 기름보일러 물집과 수도계량기가 얼어터져, 난방이 안되는 방에서 그리고 눈금사이로 흐르는 물의 낭비를 걱정하면서 지낸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곧 극복될 것이다.

떠나 오는 배에서 그 아차도의 흙과 나무와 푸른 바다를 보면서 논문은 4년간 아차도에서 쓰여진 3000천 여 쪽에 달하는 준비자료를 근간으로 두 사람의 존재의 내용을 비교해야만 한다 라고 나는 다짐했다.

2001년 5월 20일 오후 9시

유일한 나의 친 동생인 익남이가 운전하는 용진이의 용달차에 전기온돌판넬 열장

과 전기온도조절기를 9 만원에 수원에서 사가지고 다시 서울을 거쳐 북성리로 가져온 시각은 어제 자정 경이었고, 오늘 오후 4시까지 설치를 마쳤다. 전기 요금이 걱정이 돼서 두 개만 사용하기로 했다. 어째튼 이제 땔감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게됐으나, 온돌 생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는다.

논문제출 기간인 24일 이전에 김남두·김상환 심사위원 그리고 이태수 지도교수를 만나, 논문발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논문 줄거리를 보여주여야 할텐데...

2001년 5월 21일 오후 9시 20분

유난히 대북 방송이 시끄럽다. 이 집의 주위가 조용한지 알아보기 위해 첫 밤을 지새우고나서 이 집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대북 방송때문이었으나, 그 이후 서·너 밤 조용하였기에 그러나 빈 다른 집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열흘 정도 잤으나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굴지는 않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논문을 쓰려하니 시끄럽다니. 차라리 서산이 낫다. 대남 방송 보다는 대북 방송이 훨씬 많이 더 시끄럽다. 대남 방송은 애교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대북방송은 아주 시끄럽다.

두 사람의 존재(to on)의 차이가 드러나질 않는다. 플라톤에게도 쓰여진,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주제로 삼아지지 아니한[1]실체(ousia)를 *텔레스는 주제로 삼으며, 동일한 존재(실체)의 내용을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존재의 여럿 보다는 존재의 하나임에 대해 말하는 플라톤 과는 달리 *텔레스는 존재의 하나 보다는 존재의 여럿에 대해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름이 존재의 그 '내용'에 있어 서로 차이난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 그래서 나는 지금 난감해한다. 그렇지만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모순된다고 여겨 *텔레스는 모순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의 모순이 아니라고 여기는 플라톤은 모순의 '존재'를 선명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존재에 대한 두 사람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나의 논문은 이러한 점을 끈질지게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존재)의 요약을 반드시 나의 논문에 끼워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에이나이 또는 온의 쓰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쓰임새는 부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 말과 그 당시 헬라어의 쓰임새를 보기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을 들어가기에서 빠트리면 않될 것이다.

---

1) 주제로 삼지 않았다 라기 보다는 아마 주제로 삼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할른지도 모른다. 우시아(ousia, 실체)와 온(on)의 내용 상의 구분이 그에게는 불필요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시아를 온으로부터 구분하여 사용한다.

2001년 6월 12일 화요일 오후 1:26

그 동안 복사에 주로 매달렸다. 책을 살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살 수 없는 책들도 또한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된 자영업을 하는 은식이의 도움이 컸다. 어느 정도 환경에 익숙해져가기 시작했다. 환경의 변함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도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일리라.

그 동안 1학기 논문발표도 들었다. 예상 외로 철저했다. 비록 십분 발표와 이십분 문답이었긴해도 이 정도의 시간이면 대 부분 논문의 내용과 자격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7명이 발표했다. 나도 신청을 했으나, 도중에 철회했다. 아차도에서 이곳 북성리로의 이사와 적응에 걸리는 시일 때문이기도 했으나, 더 중요한 그 원인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말하는 존재의 같고 다름은 무엇인가? 미아(이여화대 1학년)마져도 논문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란다.  그럼에도 십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그러나 약간 차이는 있다. 그 때에는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였으나 지금에는 두 사람에 있어서의 '존재'이니 말이다. 만약 '에이나이'와 '존재'가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으리라. 동일하다는 것이 지금의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교수들이나 요즈음 사람들은 에이나이와 존재를 구분하는 것 같다. 교수들은 '에이나이'에 대한 요즈음의 편견을 갖는 것 같다. 요즈음(현대)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으니 말이다. 속성과 그 속성이 달라 붙는 개체를 구분하는 시각말이다. 그리고선 존재를 속성이라

했다고 주장한다. 주어와 술어의 구분에 근거해서 '존재'를 말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주어(주체 또는 개체)를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시도 등 등 이것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서서 말하려는 대 부분의 서구적인 경향(개인주의)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텔레스 조차도 개체만을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아니했다. 보이는 개별적인 몸만을 진짜로 존재하는 것 곧 실체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알려지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말하는 존재의 차이가 먼저 드러나야만 한다. 그런데 그게 아직 내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말하는 존재를 기술(記述)하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다.

2001년 6월 22일 수요일 흐림

논문 쓰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18년 전 공부 시작 할 때의 각오와 정열과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요즈음의 나는 그 때 보다 덜 뜨거운 정열을 지니고 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로 지낸다는 것에 관한 불안일까? 불만일까? 실망일까? 그 때에는 주님을 위한 나의 모든 행동이었으며,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의 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신앙을 지녔으며,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희망을 지

녔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과 신앙과 희망에 내가 지쳤을까?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기에, 주위 세상 사람들의 몰 이해와 교역자들의 위선과 거짓 등에 내가 지쳤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버렸기 때문인가? 적어도 여자는 남자가 자기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걸 때 옆에서 희생하며 도와야 한다는 신념을 나는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러기에 남자가 그 뜻을 이루면 모두 여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조 영애씨는 나의 가난과 굴욕이 싫어, 그 희생을 포기했고, 그 결과 저 멀리 나를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 여자를 버린 것은 아닌가? 어째든 이제 조 영애씨는 나의 기억에서 사라져간다. 내 허락도 없이 나의 아기를 지웠다는 것 이것이 이 사라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되지 않는다. 결코 아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싶다. 다시 옛 신앙과 정열과 희망과 생의 목적을 다시 곧추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4개월 남짓 동안에 논문이 완성될 것이며, 8년 전에 중단한 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다. 나의 지나간 과거는 땅에 떨어졌으나 썩어지므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이 될 것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주님이여!

골드먼트에게 얼둥아기가.....

2001년 6월 25일 오전 5시 51분

아주 오랫 만에 아침 운동을 했으나, 결과는 대 실패였다. 대남 방송때문이었다. 어제 밤 자정 새벽 아침 내내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그 시끄러움 때문에 잠은 물론 이려니와 공부는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 동네를 빠져 나와 농로는 타고 달려 화가들이 사는 초등학교까지 갔다 오니 5시 35 분이다. 어째든 아주 오랫 만의 정상적인 나의 행위였다. 거기 초등학교 조그만 운동장 한 바퀴를 돌 때도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힌 그 시끄러움은 아침 운동을 무 의미하게 만들어 버렸고, 창을 열고 방에 들어오는 나에게 아차도에서의 아침 운동을 현실에서는 불 가능한 하나의 천국에서의 기억으로 부활 시키면서, 그 기억에서 되 살아나는 아차도의 아침 생명이 여기 북성리의 아침에 생명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성리의 소란이 매일 밤 자정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확실치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그러한 것 같기 때문이다. 만약 매일 시끄러운 대남방송이 이어진다면, 심각히 이사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아침을 망쳤으므로, 논문에 대한 명상 보다는 잡스러운 작업 곧 IME 일어·중국어 도움말 프린트와 자판 그리고 Win98 불어·독어·이태리어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이스어 라틴어 나아가서는 아랍어·산스크리스트어·스페인어 자판 구조와 쓰

임새 등을 익히려 한다.

주여! 이 땅에 고요함을 허락하소서.....남북이 하나되어 이 땅의 소란을 없이 하시면서, 무분별한 개발의 소음으로부터도 구원하소서.

2001년 7월 15일 오후 1시

물론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거기에 비굴해 짐에 따라 대남 대북 방송의 소란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됐다. 정권의 바뀜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이런 나에게 긍정적인 큰 몫을 했으리라. 그러나 방앗간의 소음이 더 심각한 방해 물로 나를 요 며칠 사이에 가로 막았고, 이에 나는 아주 위태롭게 흔들리는 중이다. 옛 날처럼 디딜 방아 쿵덕거리는 소리거나,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라면,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쇠덩이를 돌려대는 엔진소리이니, 이를 말해 무엇하랴!

사실 여기 집을 정할 때 대북 대남 방송과 방앗간의 소리를 염려했으나, 달리 선택의 방도가 없었다. 집을 비워달라는 압력에 쪼겨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근처 어디에 삯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창조적인 사유를 할 수 있을 고요한 집이 있다면 옮길 생각이다. 그러한 집이 있다면 옮기는 것이, 비록 논문제출 기한이 3 개월 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에게 더 낫다.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방앗간이 더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당장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하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이러한

곤핍이 더 이상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유일한 친구로 간주했던 홍암이도, 내가 섣불리 믿었던 녀석들(민우, 병흠) 때문에 잃게 됐다. 물론 홍암이도 이들을 잘 다루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나의 천박한 믿음과 실수를 홍암이는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 모두를 잊고 싶다.

도와주던 유일한 친구라 여겼던 홍암이마저 잃어버린 이 비참함 겹친 내 물리적인 환경의 이러한 곤란과 배고픔을 극복하는 '논문'이 나올 수 있을까?

...옮겨야 할까?....아니, 그리로 옮겨 가야 할 그 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다시 집을 찾아가는 방랑을 해야 할까?

...

아! 방아찧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

아! 지옥같은 이 고통!!!!

2003년 6월 19일

이 년이 흘렀으나 논문은 쓰여지지 아니한 채, 다시 집을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고통 속 최악 상태에서 버텨 온 집이 팔렸기 때문이다. 영암이 고향이랬든가....이 집 새 주인 말이다.  오십은 넘어 보이는 부부가 와서 살 예정이란다. 그래서 나는 다시 집 알아 보러 가야 한다. 어제(18일)은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 윗 윗 마을에 봐 두었던, 그러나 이장이 돈을 요구해서 들어 가지 못했던 집을 자전거로 휘~ 둘러 봤다. 더 무너졌을 뿐, 아직 비어 있는 그대로였다. 일부러 그냥 둘러 보고만 왔다.

오는 길에 화가들 집에 잠시 들렀다. 부부인 줄 알았으나, 아니란다. 묘한 살림이다. 각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동거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술이려니 하고 대범하게 넘어 가기로 했다....눈에 뜨이는 것들은 없었으나, 대화 후 왔다.

오늘은 교동, 내일은 석모도 '거기'를 둘러 보기로 했다. 모래 토요일은 가능하다면, 윤우봉 목사 친구를 만나 이야기 해 볼까 한다.

여기 머무를 동안 행해진 두 번의 발표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 겨우 홍암이가 보내 온 200만원 덕분에 한 학기 등록하여 6 학점 때문에 학교 다녔다. 학점은 다 나올지, 아니면....아마 6학점은 나올 것이다. 나온다면, 논문을 다시 작성해야겠다....내가 맨 처음 쓰려했던 내용으로.....

노무현이 발악한다. 왜 그럴까?

2003, 7, 4.

송해면 양오(陽五) 1 리 993 번지로 옮겼다. 옮겨 올 집이 있었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깝다. 주님께서 한 치 오차도 없이 인도 하신 듯하다. 서검도 미복도 등에는 아예 빈 집이 없다는 이장의 일방적인 전화 상의 언질 만 받았을 뿐이고, 교동에서의 절충은 결국 돈 없는 설움 만을 나에게 더 가져왔을 뿐이었으나, 여기 양오리에서는 1 리 이장의 도움으로 북성리 보다 더 나은 집(샘물, 가스렌지, 더 잘 보존 된 흙벽, 넓은 터)을 삯없이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북성리의 대 남 대북 방송의 소음이 이제 여기에서는 건너 편 개 사육장의 개들 짖어대는 소리로 변했을 뿐, 귀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자연 환경은 북성리가 훨씬 더 낫다. 흐르는 물의 기운을 여기에서는 내 몸이 거의 받아 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지리산(6년)·아차도(5년)·북성리(2년)에서 받은 기운을 되새김하면서 운행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북성리의 거주 환경때문에 내 몸의 건강은 급속히 나빠졌지만, 멀리 나를 감싸고 돌면서 밀려 들었을 바다·임진강의 기운은 그 몸이 담아 내 저장 했으리라.

은경이 한테서 편지 왔다(699, 820.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98-1, 김은경). 고단한 12시간의 아르바이트에도 불구하고 시간대 별로 편지 글을 쓴 것이 새로운 감동으로 밀려온다. 내일 답장 써야 겠다.

학점은 확인 됐다. 형이상학 방법론(하이데거)와 형이상학 연습(근세실체론) 둘 다 A⁻(3.70) 였다. 서운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불만족은 없다. 이제 6학점을 땄으니, 논문 작업에 바로 들어가야 겠다. 두 사람의 존재를 담아내는 텔레스의 실체론....이것이 나의 목표이다.

그간 쓰여진 내 논문들은 1)두 사람에 있어서의 존재, 2)두 사람의 존재 정의와 그 방법, 3)두 사람의 음절의 비유와 존재, 4)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편에 나타난 분리와 메텍시스의 아프로리아의 극복 등 4 편이었으나, 발표된 것은 '3)'과 '4)'였다. 물론 통과되지 않았다. 앞으로 쓰여질 논문은 실체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이제사 specify 됐구먼! 이라고 말하던 지교교수 이태수 선생의 말이 떠오른다. 교수가 범위를 좁히라고 요구한 지, 무려 7년 째의 일이다.

2003, 9, 4 오전 10시

500 여 마리 이상의 개 짓는 소리는 북성리의 방앗간과 대북대남 방송 보다 더 심하다. 최악의 고통이다. 소음 없는 곳을 찾으려는 나에게 가장 큰 소음이 찾아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내 부족이다. 돈 만 있었으면 가장 탁월한 공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알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압박과 가장 큰 고통으로 밀려드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이다. 별의 별 궁리를 다하는 중이다. 다른 곳으로 옮겨 보려 시도하는 중이나 옮길 곳이 마땅치 않고, 소리를 차단하려니 엄청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 사육장 주인이 전라도 사람이란다. 여기 강화

양오 1 리 주민들 중 어떤 이가 멸시하는 전라도 라는 땅.....이 위기를 어떻게 또 극복 할 것인가? 참을 수 밖에 없는가? 아니다. 나, 익성이는 참으면서 발악하는 사람이다.

연구생으로 등록했다. 벌써 13 번째니 6년하고도 반이 수료 후 흘렀다. 지난 학기엔 홍암이 덕분으로 180 만원 들여 학생등록 다시 하고.... 이제까지 130만원이 연구생 등록비로 만 들어갔다. 게다가 그 사이 들어간 생활비용 등은 또 얼마인가! 착찹한 생각이 든다. 존재에 관한 사유가 이렇게도 오래 걸리는가? 끊임없이 24시간 들려 오는 개 소리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개 주인은 '배 째라' 식이다. 사육장 주변의 형식적인 칸 막이는 소리 차단에 거의 효과 없다. 결국 법과 행정적인 처리 만이 남았는가? 이것 만이 해결 해야 할 문제거리가 아니다. 서산 대곡리 원터 마을에 속한 땅을 빌려서 아버님께서 교회 개척하고 계셨는데, 땅 주인이 땅을 내 놓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위에 거주하는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버텨 볼 수 있다. 그러나 곧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곤란--아! 김치와 모든 부식이 떨어져 밥을 어제도 한 끼 만 먹었다. 그나마 간장과 고추장과 된장이 아주 조금 남았고....마지막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북감자도 몇 개 남았다. 이제 끓여 먹어야지--도 공부 만 할 수 있는 처소가 제공된다면 나에게는 축복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공부 할 처소가 없다. 개 소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처소는 해결된다. 공부 못하게 하는 처소는 내게는 아무런 쓰임새도 없고, 그 안에 머무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양진 교회 목사가 나와

동갑이란다. 처음에는 호감이 가는 듯 했으나, 말씀에 전화 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안 나간지 십 여일이 훨씬 넘었다. 신앙 생활마져 엉망이니 전혀 '빛'이 안 보인다. 그러나 몇 일 전에는 선자에게 말해 책 값 10 만원도 받고, 은식이가 레이져 프린터 중고 하나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안은 된다.

텔레스의 우시아를 통한 플라톤의 존재(우시아 또는 온)을 나는 이 번 가을에 드러내야 한다. 물론 글을 통해서 말이다. 형이상학 제타 편과 소피스트와 파르메니데스 편 그리고 테아이테토스 편을 다시 확인하면서 파르메니데스 단편을 다시 번역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2003년 10월 13일, 오후 4시 30분

23 명의 날인을 받아 집단 민원서를 작성했으나, 대표 선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약속한 공동대표 3 인 중, 신명승 씨의 마음이 변해 거부하자 대표 날인 한 현재 이장 마져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대표 날인 한 김형기 씨 보고 주도 하라는 이야기이다. 서명 받을 때 도와 줬음에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뿌리 깊은 감정 탓-신씨와 김 선생에게 산 측정 문제로 악 감적을 품고 있는 듯했다. 이기도 하고, 아마 그 부인의 충동질-교회는 다르나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으리라는 게 내 추측이다.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김형기씨가 거부하면 없던 일로 하자는 이장의 말은 개 사육장 주인의 마누라가 체육회 후원금 명목으로 사적으로 이장

과 신명승씨에게로 가져왔던(물론 돌려주었다고 함)일이 영향을 끼쳤음직하다. 김형기 씨 말을 들어 본 후, 최종 결정을 해야겠다. 논문 쓰는 방을 옮기면서, 각 방에 두 개 씩 모두 여섯 판넬을 깔았다. 보일러 사용하는 것이 불 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뿐 아니라, 북성리 덕하리 등지에 들어 갈 빈 집이 생긴다면, 곧 바로 옮아가기 위해서이다. 개 시끄러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비한 시간이 무려 세 달이다. 이제까지 겪은 공백 중 가장 컷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소음 보다는 오히려 공부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불안'이 나에게 더 큰 타격인 듯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에 관한 학위 논문을 써주기로 익산 송목사님과 덜컥 약속하고 말았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의 존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의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은근히 걱정된다. 그래서 나는 3월까지 두 개의 논문을 써야 한다. 하나는 플라톤과 텔레스에 있어서의 존재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 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논문책상을 옮기는 과정은 거의 이사가는 수준의 노력이 들었다. 책상 일곱 개와 책장 3 개를 집 밖으로 옮겼다, 다시 들여 놓기. 반 정도의 책을 위치 이동하면서 다시 정돈. 두 방에 전기 판넬 깔기. 다행히 옮긴 방에서는 개 소리가 가장 적게 들린다. 그러나 집 전체를 싸고 돌아 생생하게 들려오는 개 소리들은 치명적으로 나에게 손상을 준다.

우선 논문 작성 들어가고....틈 틈이 방 알아 보아 옮겨야 겠다. 어째든 이 상황에서도 공부 본 궤도에 들어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4년 6월 2일

개 소리와 추위에 질려 겨울을 보내는 동안 실의와 좌절에 빠찐 나는 봄에 이르러 겨우 되살아나기 시작했으나, 이것은 새로 내가 일군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갖은 악 조건 속에서도 비틀거리며 흙을 뚫고 솟아 올라 트여 내는 푸르른 생명 덕분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십여 년 동안 뿌린 씨들은 어찌됐는가. 왜 아직 싹조차 돋지 않는가!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두 번이나 흙(산)과 물(강)이 위치를 바꾸어가는 그 오랜 동안 나의 씨들은 왜 아직 돋지 않는가? 어느 하나에 최선을 다하면, 주위의 모든 것이 그에 알맞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내 신념이었다.

변한게 있다면, 신앙활동이었으나, 신앙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석사 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무려 8 년이나 걸린 준비작업(무려 4000 여 쪽에 이르는 자료)이 모자랐던가? 아니면 지도교수를 인정하지 않는 나였기 때문인가. 통과되든 않든 이제 4 개월 여 지나면 논문기간은 종결된다. 마지막 시간들임에도 나는 초심(初心)에 의한 논문제목(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존재)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설령 논문제목이 바뀔지라도 그 내용에서는 핵심을 담으리라. 게다가 어거스틴의 순환사관 반박이라는 신학석사논문(형님친구장애목사 김윤봉님의 부탁)도 병행해야만 한다. 어거스틴 존재론에 관한 나의 전략 때문에 그 분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과 토마스아퀴나스에 있어서의 존재

라는 제목을 나는 지리산에 있었을 적 그러니까 1989년(1988년 2월 전남대철학과 졸업)~1995년 2월 중 1993 년 경에 정했다. 만약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간다면, 석사 논문을 통해 근세 이전까지의 존재론을 다룬 후, 박사 논문에서는 근세에서 현대까지의 존재론 특히 실존철학에서의 존재(실존)을 다루려고 지리 산 자락에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학 후, 지도교수 및 관련전공교수와의 상담과정에서 어거스틴과 토마스아퀴나스는 박사 논문 작업 대상으로 석사에서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었고, 세 번째 석사 논문(두 사람에 있어서의 음절의 비유와 존재, 2001년 봄?) 발표 후에는 그나마 플라톤으로 좁혀질 수 밖에 없었으며, 네 번째 논문(2002년, 가을, 플라톤 파르메니데스 편에서의 아포리아 극복)역시 발표만이 가능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첫 번째 논문은 발표 신청만 했을 뿐, 발표하지 못했고, 두 번째 논문은 제목만 잡혔을 뿐 발표 신청조차 불가능했다.

이제 마지막 기회는 겨우 4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두 번째 논문발표 통과되지 않는 후, 만났던 자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실체)'에 관련된 제목으로 쓰려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겨우 범위가 좁혀졌군'이라고 대꾸하던 이태수 지도교수를 그 후 뵙지 못했다. 보름 후 만날 때에는 잡혀진 틀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것이 텔레스의 우시아가 될지, 아니면 두 사람에 있어서의 존재가 될지는 모르겠다. 어째든 두 사람의 존재를 꿰뚫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낱말을 통해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해 말할까.

1)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실체)에 대해 말하면, 자연스레 플라톤의 온(존재, to. o;n)를 이끌어 들일 수 있다. “존재가 아니라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존재에서 실체로의 환원 바로 이것이 형이상학 제타 편의 출발점이며,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소피스테스 편에서 소피스테스는 ‘누구’ 또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이어 떠오르는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제타 편에서처럼 실체를 문제삼으면, 존재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존재는 빠지고 이와 구분되는 실체가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록 실체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기는 해도, 첫 번째로 있는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과 구분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1-1)관련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방법론이다. ‘무엇’이냐고 묻는 두 사람은 그것의 **정의**를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많은 않다. 왜냐하면, 정의 대상인 실체(아리스토텔레스)와 존재(플라톤)가 서로 구분된다는 것을 차치한다고 하더래도, 플라톤의 방법(변증법)에 텔레스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에 그렇고, 게다가 그것이 함축하는 철학과 그 방법에 대한 두 사람의 차이는 존재론 또는 실체론의 성립여부에 관한 그들 자신들의 주장을 보여주므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따라 나누어진 맨 마지막 에이도스(종)이 그것의 정의라는 것에는 두 사람(소피스테스 편, 제타 편)이 일치한다.

2)플라톤은 존재를 **힘**(뒤나뮈스)라 정의하는 반면 실체를 맨 마지막 차이(에이도

스)라고 정의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을 있는 것의 한 '양상'이라고 해 버린다-있는 것의 있음(실체)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힘'을 문제 삼으면 자연스레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힘이라는 낱말을 통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은 지엽적일 뿐이다. 뒤나뮈스 보다는 에네르게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가 텔레스에게는 가장 먼저 있는 것 또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3)**있지 않는 것**(비존재, to mh on) 이라는 낱 말을 통해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으나, 비존재는 내 관심사항이 아니다. 비존재가 밝혀지는 그 만큼 존재도 밝혀진다고 플라톤은 말하나,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후자는 뒤나뮈스(힘, 잠재적인 것)은 있지않는 것과 비슷하다까지 말하지 않는가? 있지않는 것에 대한 플라톤의 그것과 비

교해 보라. 두 사람은 결코 화합될 수 없는 '존재론'을 지녔다.

4)진실(**진리**)라는 낱말도 두 사람의 존재론을 묶을 수는 있다. 진리는 있는 것의 한 양상이며(텔레스), 있는 것은 반드시 진짜(플라톤, 이데아)이기 때문이다.

5)**아페이론**과 **페라스**(있는 모든 것의 네 가지 종류 중 두 가지, 나머지 하나는 이것이 합쳐진 것, 또 하나는 합쳐지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데미우르고스)론 이것은 필레보스 편의 존재론이기는 하나, 있는 것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있는 것

그 자체를 다루는 존재론은 아니다.

2004년 8월 19일

가장 큰 위기이다.

마지막 논문 발표가 한 달 정도 남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공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이다. 두 달 여 전부터는 주인이 집을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는 통에 하루에도 두 서 너 번 사람들이 들락거리더니, 이제는 가정 적은 때가 120 데시벨 음량의 폭음기를 대문 바로 앞에 윗 집에서 설치 해 놓았기 때문이다. 생기기도 바주카 포 비슷하고, 폭팔되는 음량도 집 안이 뒤 흔들릴 정도로 크다. 움찔 움찔 가슴이 놀란다. 자는 몇 시간 제외하고는 때도 없이 터진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조화란 말인가. 얼마 전 집 바로 앞 논을 산 외지인이 그 논을 소작하는 윗 집 아저씨에게 20 만원 정도하는 폭음기를 사 주어, 그것을 설치하게 했나 보다.

2004년 9월 20일

형님께서 다녀가셨다. 익산에서 오전에 출발 여기 4시 경에 도착, 한 시간 정도 머무르다 가셨다. 지리산으로 공부하러 가던 날, 봉고 차에 짐을 실어 운반 해 주셨던 그 때도 비 왔는데, 오늘도 비왔다. 마지막 김치로 밥 말아 먹었는데, 김치를 가득 가져 오셨다.

폭음기는 9월 9일 중단됐다. 추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익산 집에 도착했을 무렵이라고 여겨, 형님께 확인 전화 했더니, 서산 병원에 계시단다. 당진에서 어머님 넘어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그 쪽으로 가셨기 때문이란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것인가. 왜 이러는가. 논문 제출일이 이제 십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최후 버팀목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다니. 간병 할 사람도 없는데 ... 갔다 오면 적어도 이 삼일 걸린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허리 촬영 사진은 심각하고, 정강이 부분에 금이 간 것처럼 보이며, 안면 찰과상에 틀린 받쳐주던 덧 니가 흔들거리시단다. 마음이 흔들린다.

내 논문을 본 지도교수가 자신이 직접 수정하겠단다. 이것은 학위논문으로 될 수 없을 정도다고 하면서 말이다. 결국 퇴짜라는 말인데,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더 잘 아는 교수가 살려주겠따는 것인지 ... 나 보고는 심사위원들에게 말로 자신의 발표 내용을 설명하란다.

그래도 제출용 나의 논문은 완성시켜야 한다. ... 이 번 주 안에. 그리고 다음 추석 집에 들리고 ... 숨가쁘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 나 때문에 ! 마지막 넘어가려는 고비 길을 그 무엇이 가로 막는 것 같다. 사실 마지막 고비는 절대 아니련만

2004년 9월 23일

어제 서산 의료원에 갔다. 4시 30분 경 도착 하니 아버님께서 퇴원 수속을 밟고 계셨다. 간호원 한 분이 복용 방법에 대해 설명 해 주시는 약들 중의 하나는 골 다골 증 치료제 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번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 거의 왼쪽 얼굴 면 모두가 넘어지셨을 때의 위급함을 말해 주고 있었다. 눈 동자가 안 보일 정도로 눈꺼풀과 그 주위가 부풀어 올라 푸르딩딩 멍져 있었고 위 이마 쪽과 아래 볼의 피부와 살은 바닥에 넘어지실 때 아스팔트에 쓸려나가는 통에 피가 뭉쳐 아물어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보자 마자, 모두 내 탓이라고 하셨다. 엄마는 무조건 내 탓이라고만 한다고 우기는 나를 나무라시는 듯하시면서 말이다.

병 문을 나오시면서 주위 환자들에게 예수 믿고 의지하시라는 말을 남기신다. 손을 꼬옥 잡으시면서 말이다.

....

모든 주위 아주머니 할머니 환자(6 인 실)주위에는 여성들 뿐이었다. 여든 넘기신 어머님을 밤새 간병하신 여든 넘기신 아버님, 내가 본 아름다운 행복이 어머님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내가 모든 것을 내 팽개치고 달려 온 것은 두 번의 고관절 수술 때문에 거동이 아주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간병한다는 것은 아버님의 고관절 수술 부위와 장치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나의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

환자(어머님)보다 간병인(아버님)이 더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인사말을, 엘리베이터까지 환송나오신 기독교인이라고 어머님에 의해 소개받으신 환자 옷 입은 아저씨께서 나에게 건네시는 바로 그 상황이 나의 모순을 그대로 폭로 시키고 있었다.

.....

택시 잡아, 기다리시는 아버님 따라, 집에 와, 어머님 차려주시는 밥 먹은 뒤, 넘어졌을 때 손 발이 부르르 떨리며 단지 살려 달라는 말만이 어머님 입에서 반복됐다던 그리고 술먹은 아주머니의 '제발 죽지 마시오' 라는 다급한 외침만이 반복됐던 바로 그 아스팔트 지점을 지나쳐, 오후 6시 5분 한서대학 출발 서초동 도착 직행버스 타고 강화로 들어 왔다.

덕분에 이번 추석에는 집에 못 들릴 것 같다. 우시아에로의 존재물음 환원(철학논문)과 어거스틴의 시간 순환론 비판(신학논문), 각 각 네 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내용은 완성됐다. 가감 보완을 조금씩 하면 된다.

2004년 11월 29일

의도했던 논문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사적으로 지도 교수가 어느 것이든 통과될 것이라고 했으나, 아마 김영정 교수의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본디 의중이었을런지도 모른다. 어째든 10 년 작업이 공인(公認)되지 못 해, 씁슬하다.

그러나 대신 김윤봉 목사에게 주기로 했던 ‘신학논문’이 대신 통과 돼, 다행이다. 이제,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처럼, 저술을 통해 직접 독자들에게 인정 받으므로서 교수들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얻어야 한다. 8 년 동안 쓰여진 논문자료 5000 여 쪽에 근거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I)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


1)있음(hyh)
1-1)그 이름, 엘로힘 여호와 ..... 2
1-2)hyh) l$) hyh) ..... 2
1-2-1) hyh() ..... 9
1-3)hyh의 쓰임새 일반
1-3-1)조동사
1-3-2)본동사
1-4)$y

2)있음(einai ).....53-81
2-1)'einai'의 쓰임새 일반.....57-81
2-1-1)'이다'.....62-72
2-1-2)'(이)있다'.....72-78
2-1-3)'있다'.....78-81

3)두 사람의 있음(einai).....81-342
3-1)있음을 나타내는 형식.....83-342
3-1-1) to on en.....83-124
3-1-2) to on auto kaq auto.....124-169
3-1-3) to on legetai pollacwj.....169-206
3-1-4) on h on kai ontwj on.....206-232

3-1-5) einai 앞 뒤의 3 격.....232-251
3-1-5-1) to $ekatw% einai $ekstw%.....232-251
3-1-5-2) to ti hn einai ekastw.....240-251, 333-336
3-1-6) to einai에 있어서의 여럿.....251-258
3-1-7) (非) 모순율.....258-294
3-1-8) to mh einai.....297-302
3-1-9) einai kai to on.....302-321
3-1-10) ousia.....321-342

## Ⅱ)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

1)들어가기.....6

2)다섯 책의 연결 고리로서의 to on(있는 것)과 ousia(실체)
2-1)티마이오스.....13
2-2)파르메니데애스.....24
2-3)소피스테애스.....26
2-4)범주들.....34
2-5)형이상학.....36

3)einai의 쓰임새 일반
3-1)'*es'의 근본 의미.....42
3-2)계사로 쓰인 'einai'.....45
3-3)전이(轉移)된 뜻으로 쓰인 'einai'.....48
3-4)실질동사로 쓰인 'einai'.....51
3-5)이다와 있다의 구분?...
3-5-1)esti$n% kai esti$n%.....53
3-5-2)(이)있다?.....56

4)'to on' 또는 'to einai'가 포함된 표현(表現)들

4-1) to on en.....69
4-2) to on auto kaq auto.....82
4-3) to on kata sumbebhkoj.....92
4-4) to on legetai pollacwj.....97
4-4-1) omwnuma kai sunwnuma kai to analogon....102
4-5) einai 앞 뒤의 3 격.....121
4-5-1) '_?)'에 있는 것과 '_?)'에 있는 것은 다르다.....123
4-5-2) to ti hn einai ekastw.....125
4-6) on h on kai ontwj on kai pantelwj on.....134

5)논증과 인식과 정의와 앎과 우시아
5-1)논증의 전제로서의 우시아.....150
5-2)존재 구분에 상응하는 인식 구분.....158
5-2-1)있지 않는 것의 인식.....173
5-3)정의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174
5-4)알려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우시아.....182

6)존재에 관한 두 사람의 정의(로고스)들
6-1)파르메니데애스에 관한 두 사람의 비판.....194
6-1-1)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195
6-1-2)플라톤의 비판.....199
6-2)있는 것은 힘이다
6-2-1)플라톤.....203
6-2-2)아리스토텔레스.....214
6-2-2-1)활동하고 있는 것.....226
6-3)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으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232
6-3-1)시간.....241
6-4)있(지 않)는 것은 류들을 묶고 분리한다.....247
6-4-1)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지, 반대(모순)가 아니다.....255
6-4-2)반대(모순).....267

6-5)있는 것은 류이다?.....272
6-6)있는 것의 류적인 차이가 범주이다.....281
6-6-1)우시아.....284
6-6-2)량.....294
6-6-3)질.....301
6-6-4)관계.....307
6-6-7)'행함'과 '겪음'.....304
6-6-6)'지님'.....308
6-7)있는 것은 진리이다.....311

7)끝내기.....324

8)to on과 hyh
8-1)to on과 여호와 엘로힘
8-2)hyh 쓰임새 일반

**Ⅲ)두 사람에 있어서의 존재 정의와 방법**

1)들어가기.....10

2)아포리아(문제)-존재는 정의 가능한가?
2-1)존재(to on)는 가능하다?-플라톤
2-2)존재(to on)는 가능하나, 우시아(ousia( 실체)는 불가능하다?-텔레스

3)존재 정의(orismoj)방법 - 변증법.....15
3-1)의견들의 모순을 해소(플라톤) 또는 회피(텔레스)하여, 좀더 나은 '정의'(logoj)를 규정하는 하위 변증법.....17
3-2)나눔의 방법을 통해 우시아를 정의(oroj( orismoj)하는 상위 변증법.....19

4)규정들과 그 정의.....21

4-1)뒤나뮈스(힘)으로서의 존재.....23
4-1-1)플라톤.....23
4-1-1-1)반대(모순)
4-1-1-2)그 '논증'
4-1-1-3)힘의 측정가능성
4-1-2)텔레스
4-1-2-1)에네르게이아와 구분되는 뒤나뮈스(힘)
4-1-2-2)반대를 생산하는 로고스적인 뒤나뮈스
4-1-2-3)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 있다(모순 가능하다)

4-2)움직여졌지만 움직이지않는(akinhta kai kekinhmena)것으로서의 존재(플라톤)
4-2-1)쉬어오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닌 것(to on oute esthken oute kineitai)으로서의 존재
4-2-2)존재와 시간

4-3)에네르게이아와 엔텔렉케이아로서의 우시아(텔레스)
4-3-1)에네르게이아는 뒤나뮈스보다 먼저 (이)있다

4-4)헤태론하게 있는 것으로서의 있지 않는 것(플라톤)
4-4-1)가장 큰 류들 중의 하나로서의 존재(플라톤)
4-4-1-1)있는 것은 류가 아니다(텔레스)
4-4-2)존재(to on)는 모음과도 같다(플라톤)
4-4-2-1)우시아(실체)는 음절의 존재 원인과도 같다(텔레스)
4-4-3)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헤태론이다(플라톤)
4-4-3-1)동일과 헤태론
4-4-3-2)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4-5)우시아는 맨 끝 차이(에이도스)이다(텔레스)

4-6)범주

5)끝내기

## Ⅳ)두 사람에 있어서의 음절의 비유와 존재

1)들어가기.....6

2)비유와 유비.....19
2-1)비유(metafora).....19
2-2)유비(analogia( analogia).....24

3)음절의 '비유'와 존재.....55
3-1)플라톤의 '비유'.....56
3-2)존재에 관해 말하는 길들 중의 하나로서의 유비(적인 비유).....71
3-3)아리스토텔레스의 '비유'.....81
3-4) 두 사람의 '비유' 비교.....106
3-4-1)공통 점.....106
3-4-2)차이 점.....121

4)끝내기

5)부록(附錄, Appendix)-관련된 해석들.....151
5-1) 'oion'에 관하여.....151
5-2) 'proj ti'의 'proj'에 관하여.....160
5-3) 'to einai'의 구문론적인 쓰임새(뜻) 구분에 관하여.....176

## Ⅴ)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편에 나타난 분리와 메텍시스의 아포리아 극복

1)들어가기(5-14)

2)젊은 소크라테스의 에이도스론(15-31)
2-1)파르메니데스 편 개괄(15-18)
2-2)Meqexij(나누어 지님)(18-23)
2-3)Cwrij(분리)(23-31)

3)그 메텍시스(분유)의 아포리아들(32-45)
3-1)사람의 에이도스 분리(32-34)
3-2)나누어 지니는 그 길(34-37)
3-3)에이도스의 수적인 무한함(37-40)
3-4)모든 것이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음(40-41)
3-5)우리가 모르는 에이도스와 우리에 관한 신의 불가능한 앎(41-45)

4)그 전반 부 아포리아의 극복(45-61)
4-1)철학의 임무(44-48)
4-2)후반 부의 모순 아포리아들(48-61)
4-3)모든 아포리아들은 순식간(exaifnhj)에 그 효력을 잃는다(61-76)
4-3-1)제 1·2가정에 나타난 시간(61-65)
4-3-2)순식간(exaifnhj)(65-79)

5)나오기(77-79)

6)문헌 목록(80-91)

## VI)실체에로 존재 물음의 환원

[소피스트 편(플라톤), 형이상학 제타 편(아리스토텔레스)을 중심으로]

1)들어가기 ... 7
2)존재(To on)물음 ... 9
2-1)파르메니데스 ... 9
2-2)플라톤 ... 11
2-2-1)존재물음(소피스트 편) ... 13
2-3)아리스토텔레스(범주론과 형이상학) ... 15

3)정의 ... 18
3-1)플라톤 ... 18
3-1-1)무엇이냐 ... 19
3-1-1-1)정의의 기준들 ... 19
3-1-1-1-1)대상으로서의 이데아 ... 20
3-1-1-1-2)모순율 ... 23
3-1-1-1-3)우시아 ... 25
3-1-1-1-4)'종'의 구분들 ... 29
3-1-1-1-5)반복논증 ... 31
3-1-2)정의 방법 ... 32
3-1-2-1)직관과 모음 ... 33
3-1-2-2)나눔 ... 36
3-1-2-2-1)잘못된 나눔 ... 38
3-1-2-2-2)가운데로 나눔 ... 40
3-1-2-2-2-1)척도 ... 40
3-1-2-2-3)분절에 따라 나눔 ... 43
3-1-2-2-4)소피스트 편 나눔 ... 43
3-1-2-3)결합(로고스) ... 45

3-2)아리스토텔레스 ... 48
3-2-1)정의 ... 49
3-2-1-1)정의될 수 없는 것 ... 50
3-2-2)방법 ... 53
3-2-2-1)차이에 따라 나눔 ... 53
3-2-2-1-1)차이들 ... 54
3-2-2-2)나뉨의 조건들 ... 55
3-2-2-3)나뉨에 관한 비판 ... 57
3-2-2-3-1)증명되지않는 중간항을 요청했다 ... 58
3-2-2-4)중간 항 ... 59
3-2-3)정의와 논증 ... 62
3-2-3-1)논증적인 정의와 비 논증적인 정의 ... 66

4)존재와 실체(hʼ ousia) ... 68
4-1)플라톤의 존재물음 ... 68
4-1-1)아포리아 ... 68
4-1-1-1)하나와 여럿 ... 71
4-1-1-1-1)여럿 ... 71
4-1-1-1-2)하나 ... 74
4-1-1-2)기간토마키아(유물론과 이데아 론) ... 74
4-1-1-2-1)유물론 ... 75
4-1-1-2-1-1)하고 겪는 힘으로서의 정의$_0$ ...77
4-1-1-2-2)에이도스 론 ... 79
4-1-1-2-2-1)'정의$_{01}$'과 '정의$_{02}$'의 아포리아 ... 79
4-1-1-2-2-2)'정의$_{01}$'과 '정의$_{02}$'의 연역 ... 81

4-1-2)아포리아의 해결 ... 87
4-1-2-1)나눔의 방법[**(비)존재의 변증법**] ... 88
4-1-2-1-1)비존재 ... 89
4-1-2-1-1-1)**비존재의 연역** ... 93
4-1-2-1-1-1-1)다섯 류로 나눔 ... 94
4-1-2-1-1-1-2)**비존재의 정의** ... 96
4-1-2-2)음절의 비유와 관여(메테케인) ... 101
4-1-2-2-1)음절의 비유 ... 101
4-1-2-2-2)밖에서 주어지는 우시아? ... 102
4-1-2-2-2-1)우시아를 나누어 지님 ... 104
4-1-3)존재정의 방법들 ... 106

4-2)**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물음** ... 108
4-2-1)아포리아 ... 108
4-2-1-1)형이상학 개요 ... 109
4-2-1-1-1)제타 편 개요 ... 112
4-2-1-2)지혜 ... 117
4-2-1-2-1)베타 편 ... 117
4-2-1-2-2)갚파 편 1-2 장 ... 118
4-2-1-2-3)베타 편의 두 번째 아포리아 ... 121
4-2-2)**우시아** ... 124
4-2-2-1)**정의** ... 127
4-2-2-2-1)부분과 전체 ... 131
4-2-2-2-2)하나 ... 134
4-2-2-2-3)**우시아** ... 136

4-2-2-2-4)**존재** ... 142
4-2-2-2-4-1)존재는 류가 아니다(정의에서 빠짐) ... 142
4-2-2-2-4-2)**proj en** ... 146

**5)우시아로의 존재 환원** ... 154
5-1)환원 과정 ... 154
5-2)환원 이유 ... 158

**Ⅶ)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순환론 비판**
(참회록 11권과 신국론 12권을 중심으로)

1)들어가는 말 ..... 4

2)시간 순환론 ..... 6

3)시간 순환론 비판 ..... 14
3-1)시간 .... 14
3-1-1)움직임으로서의 시간론 비판 ..... 21
3-1-2)시간의 본성 ..... 21
3-1-2-1)시간은 무엇인가 ..... 21
3-1-2-1-1)시간에 관한 그 당시의 일상적인 이해 ..... 21
3-1-2-2)영혼의 뻗어 나감(distentio animi)으로서의 시간 ..... 24
3-1-2-2-1)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 24
3-1-2-2-1-1)현재 ..... 28
3-1-2-2-1-2)기억 상(imgao)과 낱말(verbum) ..... 30
3-1-2-2-2)시간 측정 ..... 31
3-1-2-2-2-1)영혼의 뻗어 나감(distentio) ..... 31
3-1-2-2-2-1-1)넓어짐(tentio, 향함, 연장) ..... 34

3-1-2-2-2-1-2)집중(attentio)-직관(intentio) ..... 36
3-1-2-2-2-1-3)‘넓어짐’(extentio) ..... 37
3-1-2-2-2-1-4)뻗어 나감(distentio) ..... 37
3-1-2-2-2-2)시간의 측정 ..... 40
3-1-2-2-2-2-1)측정되는 것 ..... 40
3-1-2-2-2-2-2)사물(res)-인상 ..... 41
3-1-2-2-2-2-3)측정 방법 ..... 42
3-1-2-3)세대(saeculum) ..... 45
3-1-2-3-1)세대들의 세대들(sacula saeculroum) ..... 45
3-1-2-4)시간의 토대로서의 천사의 움직임 ..... 47
3-1-2-4-1)천사의 창조와 그 시간 ..... 48
3-1-2-4-2)‘항상 있음’과 영원 ..... 50
3-1-2-4-3)천사의 시간 ..... 52
3-2)순환 예정론 비판 ..... 55
3-3)시간 순환론 비판 ..... 64
3-3-1)사료 비판 ..... 64
3-3-2)반박 논증 ..... 66

4)끝내기 ..... 69

이상의 논문들의 제목을 다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
2)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
3)두 사람에 있어서의 존재 정의와 방법
4)두 사람에 있어서의 음절의 비유와 존재
5)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편에 나타난 분리와 메텍시스의 아포리아 극복
6)실체에로 존재 물음의 환원

### 7)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순환론 비판

성서 출애굽기 3장 13 절(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관련된 논의가 빠진 것이 두 번째 논문이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논문은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논문은 전혀 중복되는 것이없다. 완성되지 않는 세 번째 논문은 존재를 그 정의에 있어 다룬다. 바로 이 점에서 문제의 그 미 완성 논문은 여섯 번째 논문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논문의 시작은 존재 정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에로의 존재 환원으로 발전되기는 해도 말이다. 그리고 네 번째 논문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에 대해 말하는 다른 방법(비유)을 문제 삼으며, 다 섯번 째 논문은 플라톤의 존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비판의 핵심인 분리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위 여섯 논문은 각기 보완하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을 이룬다.

그러나 일곱 번째 논문은 두 사람의 존재론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비록 사적(史的)인 맥락에서 관련되기는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희랍(헬레네스)철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존재론이 헬레니즘 시대의 교부철학을 대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첫 번째 논문에서 이미 언급됐듯, 플라톤의 ‘ ontwj on ’이 모세의 것(출애굽기 3장 13절의 스스로 존재하는 자(hyh) l$) hyh) ))을 빌려왔다고 말한 유제비우스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정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신(테오스)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직접 신국론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동일한 그 곳을 지시하면서 말이다(일곱번째 논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는 존재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하는 존재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다--이것은 시간에 관한 이 세 사람의 논의가 아주 다르다는 것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 나아가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존재(ens)는 무엇인가? 아니, 이 보다 먼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앞 두 사람에 있어서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는다. 이것은 마지막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반면, 플라톤 만이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묻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는 무엇인가? .....